

4. 벤처캐피탈 및 PE

〈글로벌동향〉

- 2017년 4/4분기중 글로벌 벤처캐피탈 및 PE의 자금모집은 아시아 지역의 급성장으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
- 2017년 4/4분기중 글로벌 벤처캐피탈과 PE(바이아웃)의 신규투자 모두 증가세
- 미국 벤처캐피탈 시장은 성장세를 보인 반면 PE 신규투자자 회수실적은 모두 부진

〈국내동향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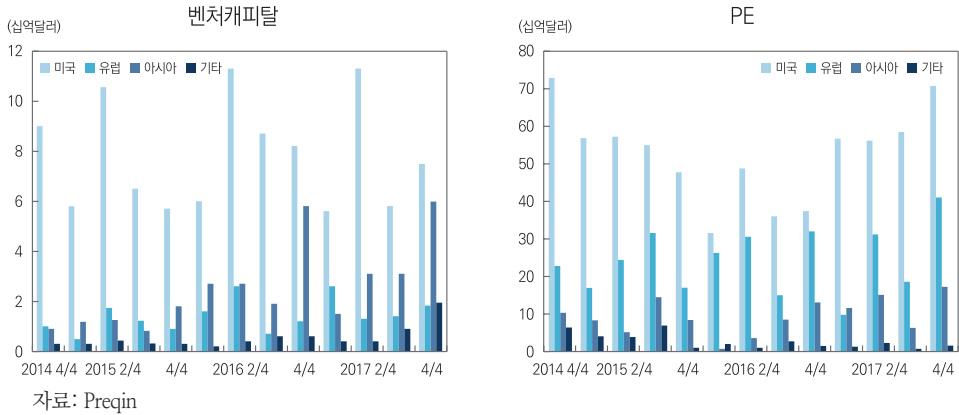
- 2017년 4/4분기중 벤처캐피탈 자금모집과 신규투자 모두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효과에 힘입어 증가세
- 벤처캐피탈 회수시장에서 IPO와 M&A의 비중은 전분기대비 격차가 확대
- 2017년 4/4분기중 PEF의 자금모집은 다소 부진하였으나 신규투자자 회수실적은 증가

가. 글로벌동향

1) 개관

- 2017년 4/4분기중 글로벌 벤처캐피탈 및 PE의 자금모집은 대체투자자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며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
 - 2017년 4/4분기 글로벌 벤처캐피탈 자금모집은 172억달러로 전분기대비 53.9% 증가
 - 전 지역의 자금모집이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아시아 지역이 전분기대비 2배 가까이 급증하며 성장세를 견인
 - 아시아 지역이 전체 시장의 34.7%를 차지하며 미국(43.4%)과의 비중 격차를 축소
 - 4/4분기 글로벌 PE 자금모집은 1,306억달러로 전분기대비 55.3% 증가
 - 미국은 소폭 증가(20.9%)한 반면 유럽(120.7%) 및 아시아 지역(173.9%)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지역별 자금모집의 편중현상이 비교적 완화
 - 2017년 기준 평균 펀드규모는 약 8억달러를 기록하며 대형 PE를 중심으로 자금모집이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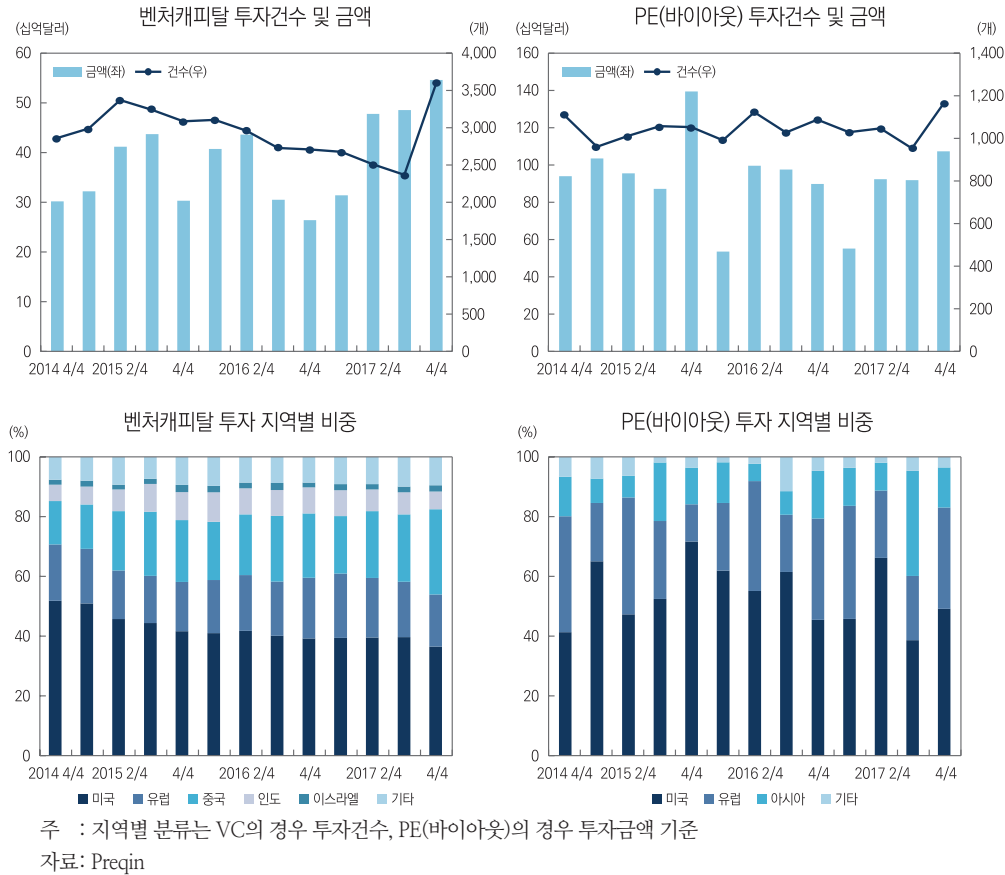
글로벌 벤처캐피탈/PE 자금모집 지역별 추이



□ 2017년 4/4분기중 글로벌 벤처캐피탈과 PE(바이아웃)의 신규투자 모두 증가세를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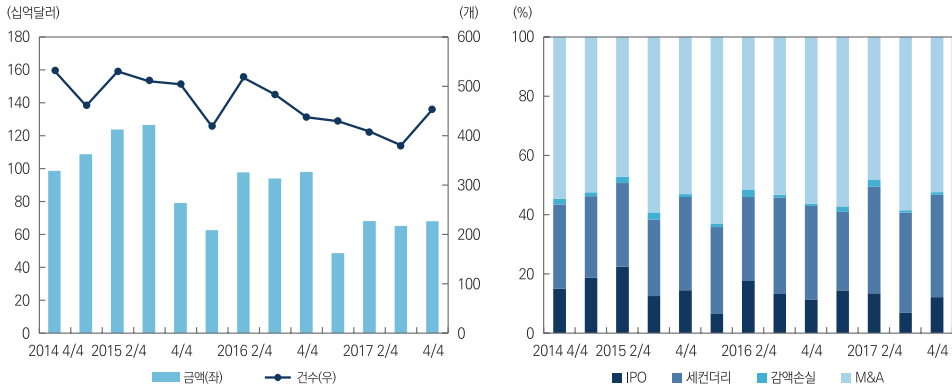
- 2017년 4/4분기 글로벌 벤처캐피탈 신규투자 금액(건수)은 전분기대비 12.4%(51.4%) 증가한 546억달러(3,586건)를 기록하며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
 - 지역별로는 중국이 전분기대비 91.4%로 급성장하였으며, 이스라엘이 65.2%, 유럽이 42.9% 증가하며 그 뒤를 이음
 - 북미 지역에 치중해있던 벤처투자가 아시아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IT 분야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짐
 - 기업벤처캐피탈(CVC)을 통한 신규투자가 크게 증가하며 벤처투자 규모의 대형화를 주도
- 4/4분기 글로벌 PE(바이아웃) 신규투자 금액(건수)은 전분기대비 16.9%(21.9%) 증가한 1,075억달러(1,162건)를 기록
 - 최근 시장 변동성의 확대로 일부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여 투자기회가 증가한데 기인
 - 아시아 지역은 55.5%로 감소한 반면 유럽과 미국이 각각 84.3%, 48.7%로 증가하며 성장세를 견인

글로벌 벤처캐피탈/PE(바이아웃) 투자건수 및 금액



- 2017년 4/4분기중 글로벌 PE의 회수시장은 IPO 및 세컨더리 확대로 전분기대비 소폭 증가
- 4/4분기중 글로벌 PE 회수규모는 680억달러(454건)로 전분기대비 4.0%(19.0%) 증가
 - 기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거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세컨더리를 통한 회수가 전분기대비 21.7% 증가
 - M&A를 통한 회수는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기록한 반면 글로벌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임에 따라 IPO를 통한 회수는 전분기대비 약 두 배 가까이 증가

글로벌 PE(바이아웃) 회수 현황



주 : 회수 수단 분류는 전수 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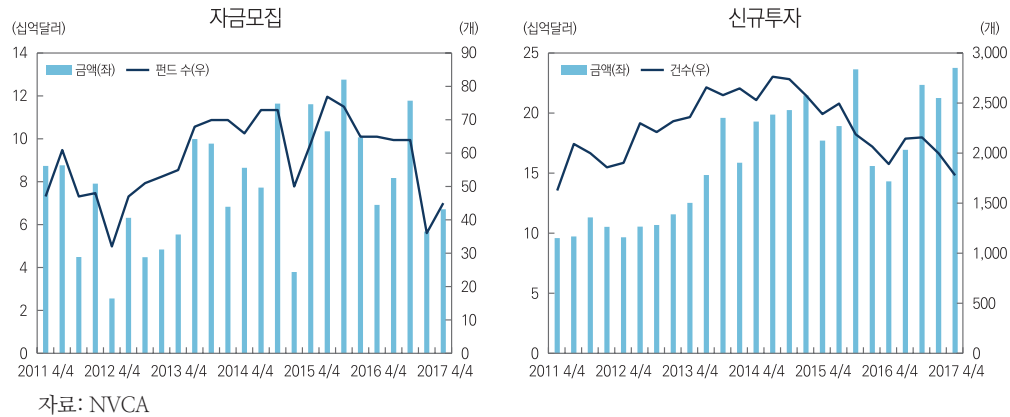
자료: Preqin

2) 미국 벤처캐피탈 시장

□ 2017년 4/4분기중 미국 벤처캐피탈 시장은 성장세를 보인 가운데 신규투자 규모는 닷컴 버블 이후 최대치를 기록

- 4/4분기 벤처캐피탈 자금모집은 67.2억달러(45개)로 전분기대비 18.4%(25.0%) 증가
 - 5천만달러 미만 규모의 소형펀드 결성은 감소세를 지속한 반면 1억달러 이상 5억달러 미만의 중형규모의 펀드 결성은 확대
 - 미투자자금이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는 시장 환경으로 인해 2017년 신규 자금모집의 성장세는 전반적으로 둔화
- 4/4분기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자는 237.5억달러(1,778건)를 기록하며 2000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
 - 유니콘을 포함한 초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핀테크에 대한 투자가 최근 다시 증가세로 전환
 - 평균 투자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는 후기단계 기업에 대한 대형규모의 투자가 집행된 것에 기인
 - 업종별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비중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반면 제약 및 바이오에 대한 투자 비중은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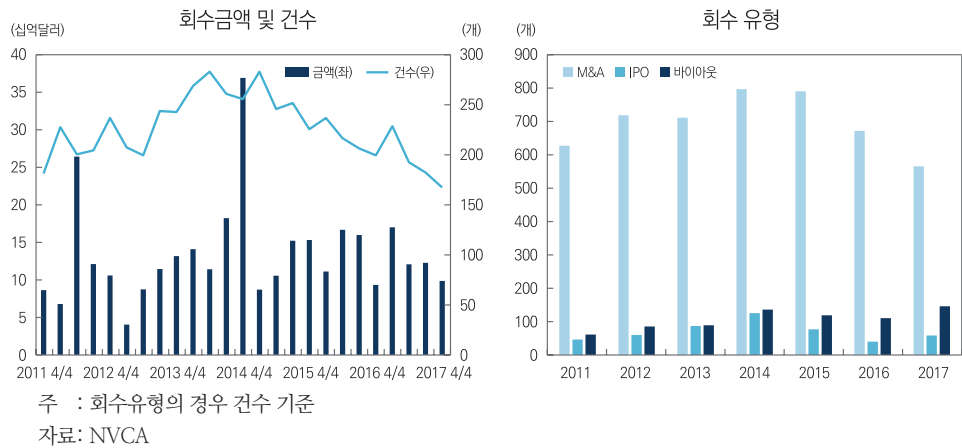
미국 벤처캐피탈 자금모집 및 투자 추이



□ 2017년 4/4분기중 미국 벤처캐피탈 회수실적은 M&A 시장의 위축세에 따라 다소 부진

- 4/4분기 벤처캐피탈 회수금액은 전분기대비 19.7%(-8.2%) 감소한 98.1억달러(167건)를 기록
 - 미국 증시의 호조세로 IPO는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제개혁 입법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규모 M&A 거래가 감소한데 기인
 - 이에 따라 IPO의 비중은 전분기대비 26.0%p 증가한 31.9%를, M&A는 27.4%p 감소한 59.5%를 기록하며 두 비중간 격차가 크게 축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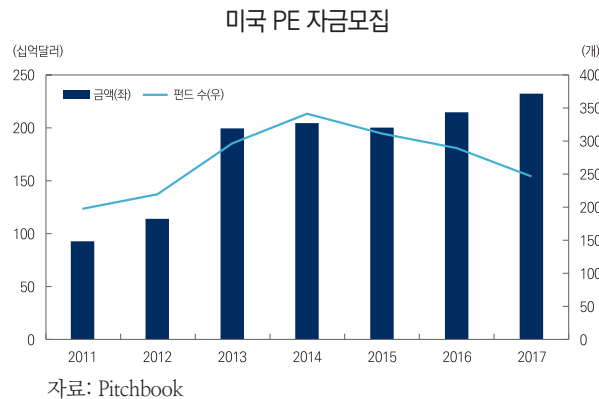
미국 VC 회수 현황



3) 미국 PE 시장

□ 2017년 4/4분기중 미국 PE의 자금모집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PE에 대한 LP들의 선호가 지속되면서 견조세 유지

- 4/4분기 PE 자금모집은 소형펀드 위주로 결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모집금액(펀드수)은 540억달러(63개)를 기록하며 전분기대비 13.1%(8.6%) 감소
- 2017년 PE 자금모집은 2,327억달러(247개)를 기록하며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펀드규모의 대형화 흐름이 지속
 - 동기간중 결성된 50억달러 이상 규모의 초대형 펀드의 비중은 47%로 절반 가까이 차지
 - LP들의 경우 클럽딜 형태의 참여 기회를 높이는 동시에 실사 비용의 감소 및 운용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한 목적으로 소수의 대형 GP를 중심으로 출자하는 경향이 더욱 심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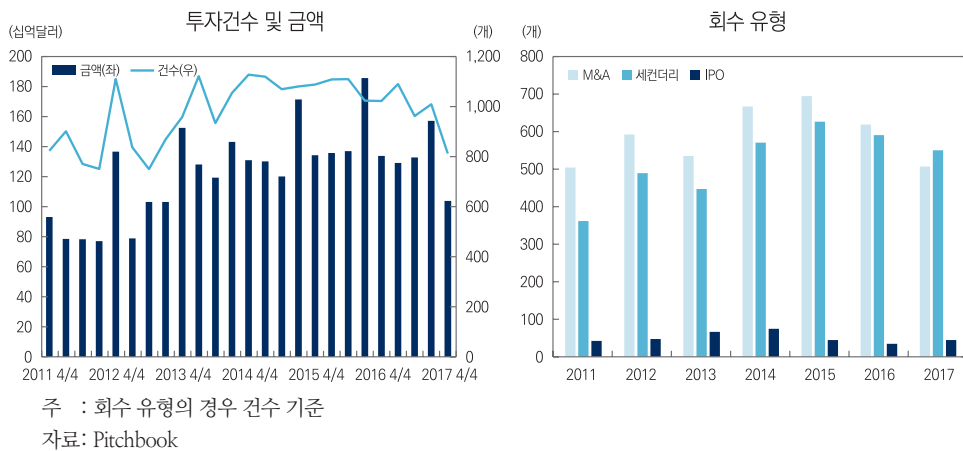


□ 2017년 4/4분기중 미국 PE 신규투자자 회수실적은 모두 부진

- 4/4분기중 미국 PE의 신규투자자 규모는 1,036억달러(810건)로 전분기대비 33.9%(−19.6%) 감소
 - 2017년 신규투자자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11.7% 하락하며 201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
 - 이는 기업가치의 고평가 현상과 매력적인 투자대상의 부재에 따른 PE간 경쟁심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기인

- 펀드결성 규모는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평균 투자규모는 5억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, 규모별로 비교적 다양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4/4분기 미국 PE의 회수규모는 435.2억달러(224건)로 전분기대비 18.8%(−24.1%) 감소
 -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M&A 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M&A 유형의 회수 비중은 감소한 반면 IPO는 소폭 증가
 - 회수시장의 침체로 포트폴리오 보유기간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세컨더리를 통한 회수 비중은 꾸준히 확대

미국 PE 투자규모 및 회수 현황



나. 국내동향

1) 벤처캐피탈 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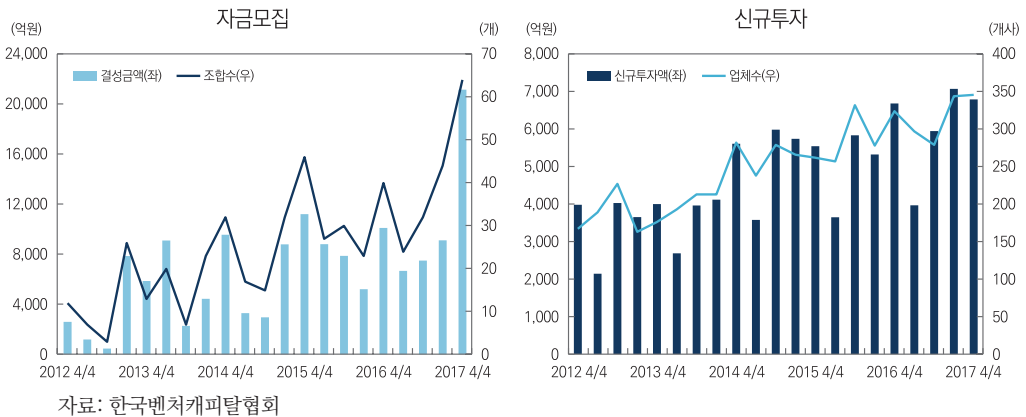
- 2017년 4/4분기중 국내 벤처캐피탈 자금모집과 신규결성 조합수는 하반기 대규모 추정효과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
 - 4/4분기 벤처캐피탈 자금모집은 전분기대비 132.3% 증가한 2조 1,158억원을 기록
 -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뿐만 아니라 연기금, 공제회 등 민간 부분의 출자 또한 큰 폭으로 확대된데 기인

- 벤처캐피탈 신규결성 조합수는 전분기대비 45.5% 증가한 64개를 기록
 - 천억원 이상의 벤처조합이 결성되면서 벤처조합 규모의 대형화 추세가 두드러짐
 - 정부의 중기·벤처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조합 결성이 확대

□ 2017년 4/4분기중 벤처캐피탈 신규투자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등의 효과로 견조세 유지

- 4/4분기 벤처캐피탈 신규투자 금액은 6,797억원을 기록하며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
 - 2017년중 신규투자 금액은 2조 3,803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2015년 이후 3년 연속 신규투자 금액이 2조원을 상회
 - 업종별 신규투자는 ICT서비스 및 유통/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강세를 보였으며, 바이오/의료 분야가 그 뒤를 이음
 - 업력별로는 후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가 39.3%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초기기업이 32.7%, 중기기업이 28.0% 순을 기록
- 동분기 신규투자 기업수는 전분기보다 2개사 증가한 346개사를 기록하며 최고치를 경신

국내 벤처캐피탈 결성규모 및 신규투자 추이



□ 2017년 4/4분기중 벤처캐피탈 회수시장에서 IPO와 M&A의 비중 격차는 전분기대비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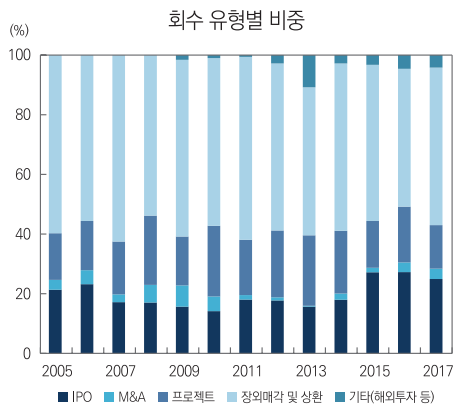
- 4/4분기 M&A 비중은 전분기대비 0.1%p 증가한 3.5%를, IPO는 3.9%p 증가한 24.0%를 기록하며 두 비중 간 격차가 확대
- 2017년중 회수규모는 9,251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

- 회수유형별 비중으로는 장외매각 및 상환(52.8%)과 IPO(24.9%), 프로젝트(14.6%) 순으로 기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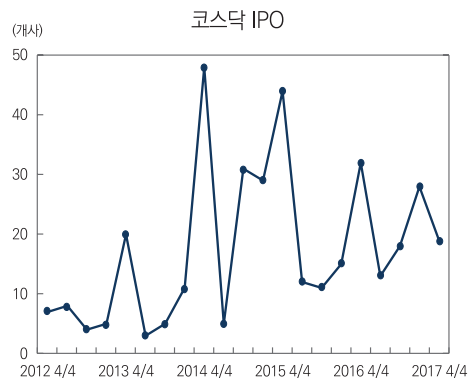
□ 2017년 4/4분기중 코스닥 IPO는 연말 쏠림현상이 완화되며 전분기대비 32.1% 감소한 19개사를 기록

- 2017년중 코스닥 시장의 총 IPO 수는 전년도대비 8개사 증가한 78개사를 기록
 -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어 코스닥 지수가 활황세를 기록한 것에 기인
 - 초대형 기업의 IPO로 인해 공모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
- 동기간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은 기업의 IPO 수는 40개사를 기록하며 전체의 51.2%를 차지

국내 벤처캐피탈 회수시장 추이



자료: 한국벤처캐피탈협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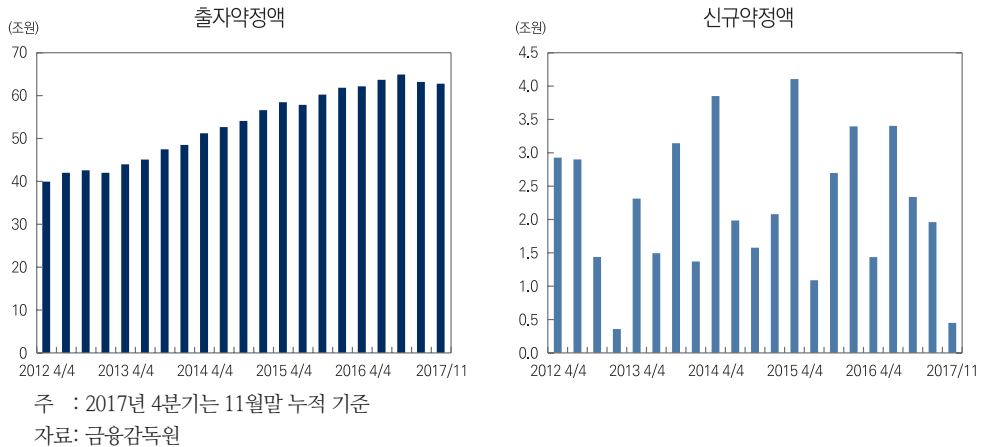
2) PEF 시장

□ 2017년 11월말 기준 PEF의 자금모집은 대형규모의 PEF에 대한 출자 감소로 위축세로 전환

- 11월말 기준 총 출자약정액은 62조 8,120억원을 기록하였으며, 신규약정액은 4,482억원을 기록하며 다소 저조한 수준
 - 소형규모의 PEF를 중심으로 결성된 가운데 창업·벤처전문PEF가 3개 설립되면서 전분기에 비해 소폭 증가

- 최근 정부가 혁신 모험자본 육성 정책 발표를 통해 PEF 설립의 진입장벽을 완화시킴으로써 향후 PEF 결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

국내 PEF 자금모집 추이



□ 2017년 4/4분기중 PEF가 대형규모의 M&A 거래를 주도하며 신규투자 및 회수실적이 확대

-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국내 M&A 시장이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주요 거래의 인수주체가 대기업에서 PEF로 전환되는 흐름이 뚜렷
 - 4/4분기 전체 M&A 시장 규모에서 PEF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55%를 차지
 - 대기업의 경우 M&A 시장 참여에 저조한 흐름을 보이며 기업 내 현금을 유보하는 양상
- 4/4분기 완료된 주요 회수 거래로는 베인캐피탈 컨소시엄이 약 3조 3천억원 규모로 카버코리아를 유니레버에 매각
- 벤처캐피탈이 운용하고 있는 PEF 또한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임에 따라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회수를 활발하게 진행
 - 바이오, 게임, 유통 등 다양한 투자업종에서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며 회수를 완료

연 구 위 원 박용린 (02-3771-0830, yrpark@kcmi.re.kr)

선임연구원 안유미 (02-3771-0869, woops67@kcmi.re.kr)

벤처캐피탈 및 PE 주요 이슈: 「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」 및 후속 대책 발표

- 2017년 11월 현 정부 국정목표의 하나인 혁신성장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중기벤처부, 기재부, 금융위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「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」이 발표
 - 3대 추진방향인 혁신창업의 친화적 환경 조성,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, 창업·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하여 혁신창업 국가 실현을 목표로 설정
 - 혁신기업의 창업기반 구축과 성장지원을 위한 충분한 자금지원이 핵심
 - 세부적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음
 - (혁신창업의 친화적 환경 조성) 기업·대학 핵심 기술인력의 창업도전 환경 조성 및 벤처확인제 개편 등 민간 중심의 혁신기업의 선별기능 강화
 - (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)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및 엔젤투자 소득공제와 스톡옵션 비과세 등 세제지원과 규제개혁
 - (창업·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) 코스닥 시장 활성화, 기술탈취 제재 및 M&A 인센티브의 확대
 - 이후 금융위와 중기벤처부를 중심으로 후속방안이 발표
 - 「혁신모험펀드 조성·운영 계획」(관계부처 합동, '18. 1. 17)
 - 「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」 및 「금융혁신 추진방향」(금융위, '18. 1. 11 및 1. 15)
 - 「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」(중기벤처부, '18. 1. 31)
- 금번 혁신창업과 관련된 일련의 대책은 이전 대책과 비교하여 일부 실행 방안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도모
 - 코스닥 상장요건에서 계속사업이익 및 자본잠식 요건을 삭제하고 세전이익·시가총액·자기자본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상장이 가능하도록 변경
 - 코스닥 상장요건의 완화는 실질적으로 미국 나스닥 상장요건의 취지와 유사한 상장요건을 채택하는 것임
 - 코스닥 시장 독립성 제고를 위해 코스닥위원장의 분리 선출 및 상장심사·폐지 업무를 코스닥위원회가 심의·의결

- 2020년까지 약 10조원 규모로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총 22조원 규모의 보증·대출을 공급하여 기존 벤처생태계 자금지원 규모 대비 대규모 자금이 조성
-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존 벤처확인제를 개편하여 민간에 벤처확인을 위임하고 벤처투자 규제완화를 반영한 벤처투자촉진법을 제정하며, 민간투자의 견인에서 민간투자를 후원하는 모태펀드 운용으로 방향 전환을 모색
 - 그간 벤처확인제는 벤처확인 기업의 90%가 보증·대출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벤처기업 선별 기능이 제한
 - 벤처투자촉진법은 기존 중소벤처 지원 관련 법령인 「창업지원법」과 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의 벤처투자 규율을 일원화하고 진입장벽과 투자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
 - 모태펀드의 민간 자율성 확대 역할 강화를 위해 민간제안 펀드 도입, 성과중심 운용사 보수체계 및 민간출자 인센티브를 확대

□ 종합적으로 이번 정책은 그간 민간 시장참여자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논의되었던 벤처생태계 개선 방향이 관련 정부부처가 협력하는 가운데 상당 부분 반영된 대책으로 평가되며 정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

- 아직까지 벤처투자 관련 국내 규율체제가 부처별로 이원화되어 있어 민간의 자율적 선택을 최대한 지원하되 규제차익 등 비효율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
- 코스닥 상장기준 완화가 투자자보호에 대해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
- 공공 투·융자 자금이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민간투자 구축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